

## 초등학생용 논어상담프로그램 개발\*

이 정 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이 연구의 목적은 「논어」에 담겨있는 ‘마음’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마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마음의 성장과 관련된 상담 요소’를 찾아내어 초등학생용 논어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먼저 「논어」속 공자의 마음교육에 근간이 되는 구절 및 「논어」와 관련된 기존 연구물을 통해 「논어」에 함의된 상담 목표, 상담 원리, 상담자의 역할, 마음의 정체와 특성, 마음의 발달단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논어상담프로그램의 상담 요소와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하고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음성군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중 20명과 △△초등학교 20명을 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여 실험집단의 아동에게 5주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검사를 재작성하여 사용한 공태수(1998)의 자아존중감 검사지와 Furman과 Bierman(1983)의 교우관계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를 조성례(2001)가 재작성한 교우관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논어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아동은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있어 통제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논어」에 담긴 마음 성장 관련 내용을 토대로 논어 상담이라는 새로운 상담학적 연구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마음, 논어상담프로그램, 자아존중감, 교우관계, 초등학생

\* 본 논문은 청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정희, 청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초등상담교육, (361-1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35, Tel : 043-295-5439, E-mail : gml30@hanmail.ne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성적인 졸업식 뒤풀이 행태, 욕설이 난무하는 대화, 인터넷 악플러,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들은 도를 넘어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학력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회적·교육적 환경 때문일 것이다. 즉 ‘머리는 크고 마음은 텅 빈’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문제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되짚어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박성희(2001)는 마음은 인간 존재의 한 가운데에서 삶의 방향과 지향점을 결정하고,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기제이자 인격 자체라고 하였다. 그래서 마음을 ‘사람을 움직이는 중심축’이라고 한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에서는 상담심리학이 출범한 이후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해답이나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서양의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한계의 인식으로 인해 동양사상에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최연실, 1999).

수많은 사상 중에서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동양인의 통치이념이 된 것은 유교사상이라 할 수 있다. 유교사상은 동양인 내적 의식의 기본 틀인 것이다. 동양사상의 근본이자 유교사상의 근본은 「논어」라고 할 수 있다(김삼화, 2002). 따라서 「논어」를 재조명하여 「논어」에 기재된 동양인 삶의 지혜를 우리

현실의 삶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정중(1980)은 「논어」 속에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치가 들어 있다고 하였다. 공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덕목의 나열에 그치는 도덕학이 아니고, 인륜관계의 조화를 주안점으로 삼은 인간 교육이며 인간의 인간을 위한 교육, 인간 회복을 위한 실천 교육이라는 것이다. 또한 논어는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해 다루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양성준, 2009).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현대 교육이 부딪친 비교육적 장벽을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논어」는 우리들에게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방법, 일상생활의 틀에 적응하는 방법, 각 개인이 삶의 좌표를 찾는 방법 등을 가르쳐 준다(于丹, 2009).

한편, 「논어」의 내용은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중국에서 논어 방송 강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이나 논어심득이 600만부 이상 팔린 현상을 보더라도 「논어」가 현대인에게 인격수양과 자기계발서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박성희(2007)는 공자와 논어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적용하고 그 속에서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제공하는 상담적 가치를 가득 담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논어」에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상담적 요소와 관련지어 마음 성장을 위한 상담 요소와 상담 방법을 찾아보고 이것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내

용을 구성하여 학생 스스로 ‘마음’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논어」와 「논어」에 대한 기존 연구물을 통해 ‘마음’과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추출하고 상담 이론에 입각하여 초등학생의 발달과정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요즘 아동의 ‘마음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찾아내어 상담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논어」에 담겨있는 상담방법

### 상담원리

「논어」에서는 인간 삶의 동기를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즐거움으로부터 출발하여 긍정적인 기쁨의 감정으로 도달하려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보며, 인간의 성장과 성숙의 목적도 소외, 불안,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제거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 가. 상담자의 역할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가깝지만 지적인 면, 능력, 태도, 성격, 역할, 발전적인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보았다. 때문에 상담을 할 때 공자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 하였다.

공자가 제자를 대하는 태도와 교육 방법을 상담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공자의 상담은 청담자를 진실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상담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청담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하기에 문제의 핵심

을 예리하게 짚을 수 있으며, 모든 선택의 결정권은 청담자에게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기에 청담자는 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촉진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인해 청담자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공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무한한 발전 능력에 대한 믿음 자체가 청담자의 변화를 이끄는 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하였으며, 상담의 과정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한지영, 2006).

### 나. 마음의 정체와 특성

인간의 마음은 그 내용에 있어 매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의적이고 다차원적이므로 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마음은 ‘정신’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마음’은 ‘정신’에 비해 훨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며, 그 의미와 내용도 모호하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의식’의 뜻으로도 쓰이며, 육체나 물질의 상대적인 말로서 철학에서는 ‘정신’ 또는 ‘이념’의 뜻으로도 쓰이는 막연한 개념이 되었다(유길상, 2007).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의 ‘마음’은 유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교사상에서는 우주가 하늘, 땅, 사람의 세 가지 존재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사람은 하늘과 땅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늘은 궁극 존재로서 사람에게 성품을 부여하였고, 땅은 자연의 세계로서 사람에게 신체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성품과 땅에서 온 신체가 이질적인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람 안에 섞여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자신의 구성 요소들을 독특하게 결합하여 새로운 존재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마음이다. 마음은 성품을 간직하면서 신체와 결합된 인격통합의 중심체이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체로서 내면의 통합을 이루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을 감당한다. 그런데 마음은 자신의 출생을 가능케 했던 두 요소, 즉 하늘과 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편성과 개체성 사이, 불멸성과 가멸성 사이, 선과 악의 사이, 성스러움과 더러움의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마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성품을 따라 신의 경지에 도달케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신체적인 요소에 구속되어 욕심을 억제하지 못해 불행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박성희, 2001).

#### 다. 마음의 발달 단계

공자는 마음의 발달은 일정한 단계를 거치고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의 성장과정을 예로 들어 인격의 발달 단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인용】**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하였고, 서른 살에 자립하였고, 마흔 살에 사리에 미혹하지 않았고, 쉰 살에 천명을 알았고, 예순 살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일흔 살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넘지 않았다. (제2장 위정편 4절)

공자가 말하는 학(學)이란 전 인격의 성숙과 관련된 인간 공부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는 배움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마음공부의 경지, 즉 공부의 차례를 말한다. 열다섯 살, 지학은 논어 술이 편에 나오는 ‘옛 도를 믿고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지학은 다른 어떤 것에 앞서서 도를 공부하는데 한결같이 뜻을 두는 것을 말한다. 서른 살, 이립은 입명(立命), 즉 입신(立身), 입심(立心)을 말한다. 이립은 크게 세우는 것으로 서른 살에 ‘독실이 믿고 호학하여 죽음으로써 공부를 지켜 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학이 처음으로 도에 뜻을 두는 입학(入學)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립은 학을 세우는 입학(立學)의 단계라 할 수 있다. 크게 봐서 지학과 이립은 독실이 공부하는 이른바 독학(篤學)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독실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지극정성으로 일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청춘을 통틀어 그야말로 황금시기인 이립에서는 시간을 잘 배분하여 일과 휴식 및 학습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도 중요하다(이천효, 2008).

초등학생은 마음의 발달단계 중 첫 단계에 해당하므로 지학에 해당한다. 즉 마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마음공부에 뜻을 두도록 해야 한다.

#### 마음의 본질

공자의 사상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자신의 본질로 여기고 그 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삶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그릇된 삶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내면의 명령을 읽고 그 작용에 따라서 사는 삶이 참된 삶이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려면 우선 마음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공자는 마음의 본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인용】 性은 서로 비슷하나 익힘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게 된다. (제17장 양화편 2절)

성(性)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특징 지워주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다. 공자가 성이 서로 비슷하다고 한 것은 인간이 감정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면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희(喜), 노(怒), 애(哀), 락(樂), 애(愛), 오(惡), 우(憂) 등 감정(칠정)이 있다. 누구나 좋은 감정은 유지하고 재현하려고 하고 나쁜 감정은 피하고 망각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성이 서로 비슷하다고 한 것이다(김삼화, 2002). 익힘에 의하여 서로 멀어진다는 것은 습관 때문에 서로 멀어진다는 것이다. 습관은 태어난 후에 여러 가지 의례를 항상 행하고 익히면서 생기는 것이다. 온전한 본성을 타고 났어도 현실적으로 인간은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기도 한다. 선한 습관을 익혀 선을 행하는지, 악한 습관을 익혀 악을 행하는지에 따라 선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전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공자의 성이 ‘선(善)’을 담고 있다거나 ‘선’ 지향이라는 것은 그의 여러 언급에서 알 수 있다. “사람의 삶이란 정직하게 마련인데 그렇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요행히 재앙을 면하고 살아가는 것이다”(옹야)라고 했고, 인에 대해서도 “사욕을 근본하고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사욕을 극복하고 본성을 회복한다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니 인을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지 남에게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안연), “인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인이 이르느니라.”(술이), “진실로 인에 뜻을 두면 악이 없게 되느니라.”(이인), “지사와 인인은 삶을 구해 인을 해치지 아니하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룩한다.”(위령공), “번지가 인을 물으니,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안연), “오직 인자라야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이인)라고 해서 선의 최고 경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천에 대해서도 “오십에 천명을 알았다”(위정),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로 배워서 위로 통달했으니 나를 아는 자는 그 하늘인저”(현문), “하늘이 덕을 나에게 부여했거늘 환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랴”(술이),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사계절이 가고 백물이 생겨나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양화),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도할 곳도 없다”(팔일)라 해서 선의 근거를 삼고 있다. 이를 보면 인(仁), 천(天) 등과 연결되는 성(性)은 공자에 의해서도 이미 선으로 정립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최근덕, 1992).

공자도 나이 칠십이 되어서야 자신의 욕망과 자연의 보편적인 규범 사이에 아무런 마찰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공자도 칠십이 될 때까지 욕심을 조절하고 본성을 따르는 훈련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것이다. 공자는 욕심을 조절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가 따라야 하는 의무의 근원을 자신의 내면에서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박상리,

2006).

### 마음의 성장을 위한 상담 요소

공자는 제자들에게 군자가 되라고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덕목을 제시하였다. 덕목이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의 중요한 항목을 열거한 것으로, 사람들의 수양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공자가 열거한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仁)이다. 인은 사람의 최고의 덕이라고 공자는 말하고 있다(이연호, 2010).

인을 실현하고 사는 삶은 유교에 있어서 지극한 삶의 모습이 되고, 인간을 완성하는 길이 된다. 인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의욕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을 실현하는 방법을 공자는 충서(忠恕)로 구체화한다. 자신의 내면적 성실을 다하고(忠), 다른 사람을 배려함에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할 것(恕)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이겨내야 한다(克己復禮).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중심으로 가치 체험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이겨내야 남을 배려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옳은 것이 아니면 아예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고 강하게 촉구한다. 마치 ‘깊은 물에 다다른 듯이, 살얼음을 밟듯이’ 지극한 도덕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김형기, 2006).

이 연구에서는 마음공부에 뜻을 두고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상담 요소로 내 마음 회복하기(忠)와 네 마음 되어보기(恕)로 나누어 알아보려고 한다.

### 가. 내 마음 회복하기(忠)

이천효(2008)는 논어에서 오직 마음을 얘기한다고 한다. 유학의 목적은 성품을 아는 것이고 공자의 논어를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안다면 공자와 대등한 위치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마음공부를 통하여 공자의 마음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공부, 즉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돌이켜서 비춰보아야 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이해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만일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정서를 깨닫는 과정 없이 분출하는 정서대로 행동한다면 이는 바로 충동적 행동으로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정서가 노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화난 그대로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즉 자기정서이해와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은 나란히 일어나며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하는데 기초가 되는 능력이다. 결국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분과 이 기분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서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살피는 것이다.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린 후 이 정서를 적절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다(손경숙, 2007).

본래 상태의 마음은 그 자체로서 온전하다.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출생한 마음은 완전한 조화의 상태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 본래의 마음이 현실생활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려고 할 때 생긴다. ‘마음을 기른다’는 말은 없

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상태의 마음을 드러낸다 또는 본래 상태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본래 마음은 기질의 제약과 욕망으로 인해 은폐되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매사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뿐 아니라 적절한 통제력을 발휘하여 자기중심을 확립하도록 정진해야 한다(박성희, 2001). ‘내 마음 회복하기’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되짚어보아 그 영향력을 생각해보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자신의 마음에 비춰보는 것이다.

#### 나. 네 마음 되어보기(恕)

공자 사상의 정수이며 극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인(仁)이다. 인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제도 등과 같은 유형적인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 사람 각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태도란 다른 아닌 ‘사람이란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사람다운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으로 확대하는 충서(忠恕)를 말한다. 인의 실천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논어에는 충이라는 글자가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이 글자는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보다 더 넓고 내용도 다르다. 충은 ‘가운데(中)’과 ‘마음(心)’이 합하여진 글자이다. 마음에 중심이 올바르게 서있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마음이다. 자신에게 정직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을 가

지고 대할 수 있으므로 참된 마음을 의미한다. 나 스스로 참된 마음을 다하였을 때 자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거짓으로 남을 대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 있게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을 위하여 참된 마음을 가져서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서(恕)는 좀 더 적극적 방법이다. ‘같다(如)’와 ‘마음(心)’이라는 글자가 합하여져서 남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뜻이 된다. 내가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먹고 싶고, 내가 쉬고 싶으면 나의 동료도 마찬가지로 쉬고 싶어 하는 생각을 미루어 보는 것이다.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박상리, 2006).

다른 사람의 정서를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쾌한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감정을 인식하고 그 반응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다른 사람의 정서를 수용하는 능력, 정서에 민감해지는 능력,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 등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재 경험해 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느낀 감정이나 기분을 마치 자신이 느낀 것처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 공감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자신의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 대상에 몰입하여 이타심을 가질 때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손경숙, 2007).

‘네 마음 되어보기’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본질적으로는 같아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되어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존중

하는 것이다.

### 마음의 성장을 위한 상담 방법

공자는 그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인간 마음의 성장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알려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내 마음 회복하기’를 위한 상담 방법으로 내적 동기화 높이기, 분노 다스리기, 배움 즐기기, 배움 구하기, 실력 배양하기, 구체적 모델 제시하기에 대해 알아보고, ‘내 마음 되어보기’를 위한 상담 방법으로 선입견 배제하기, 관찰하는 태도 갖기, 허물 덮기, 충고하기, 외모 예절 갖추기, 긍정적 정서 반응 늘리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적 동기화 높이는 것은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자는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비결로 동기화 수준을 높일 것을 권하고 있다. 분노 다스리기는 학문이 깊으면 분노까지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본래적인 마음이 미혹되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곧바로 나타나도록 하는 직(直)을 사용할 수 있다. 배움 즐기기, 배움 구하기는 배움을 좋아하고 즐겨야 실수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배움 구하기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실력 배양하기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성을 얻는 일은 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력을 쌓는 데서 생긴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모델 제시하기는 인격 수양의 높은 수준에 이른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박성희, 2007).

선입견 배제하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 선입

견을 가지지 말고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만나지 않고 투명한 자세로 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성(誠)을 들 수 있다. 관찰하는 태도 갖기는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무턱대고 반응하지 않고 먼저 살피고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한 것이다. 허물 덮기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한을 사게 되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다. 항상 삼가고 조심하는 경(敬)의 태도로 친구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고하기는 친구 사이에 좋은 말로 충고하고 비평하는 일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충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무리하게 말하는 일은 그만두라고 한다. 외모 예절 갖추기는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외모 예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박성희, 2007). 긍정적인 정서 반응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한테 긍정적인 정서를 미리 예견하는 방법으로 행동변화를 촉진하라는 것이다(김삼화, 2002).

### 초등학생용 논어상담프로그램 개발

#### 논어상담프로그램 내용 구성

이 연구에서는 집단상담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집단상담의 발달 단계를 도입, 진행, 종결 단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도입 단계는 집단상담 활동을 위한 준비단



계이며 집단에 사회화하는 초기단계로 볼 수 있으며, 탐색과 오리엔테이션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집단상담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단계이다. 도입 단계는 1회기로 구성하여 집단상담 형성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집단의 과정목표와 자기소개 등을 다루며,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 단계는 집단원의 상호작용과 집단상담 역할을 활용하여 집단분위기 조성 및 신뢰감을 형성하여야 하며, 논어에서 추출한 마음 성장을 위한 상담 요소인 ‘내 마음 회복하기’와 ‘내 마음 되어보기’ 활동을 하였다. 2회기에서 5회기까지는 ‘내 마음 회복하기’ 활동, 6회기에서 9회기까지는 ‘내 마음 되어보기’ 활동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 또는 집단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며, 결과나 과정을 자율적으로 나누거나 토의하고 정리하여 생활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종결 단계는 집단 활동의 전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개인과 집단의 평가와 함께 집단상담에서 얻는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 논어상담프로그램 실제

논어상담프로그램은 각 40분씩 10회기 분으로 제작되었고, 각 회기마다 시작, 전개, 정리 단계로 구성하였다.

시작 단계에서는 낭송시 또는 음악시를 들려주며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였다. 공자는 교육 내용으로 시, 음악을 중시하였다. 공자 스

스로도 시와 음악에 깊은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 “시로써 인간적인 감흥을 일으키고, 예로써 인격의 내용을 충실케 하고, 음악을 배움으로써 완성에 도달한다.”(태백)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친구야 너는 아니’(이해인 시, 부활 노래), ‘푸르른 날’(서정주 시, 송창식 노래), ‘향수’(정지용 시, 이동원·박인수 노래) 등 노래 시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김동규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자전거 탄 풍경 노래) 등 시 같은 노래를 도입 단계에서 들려주며 분위기 조성을 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내 마음 회복하기’와 ‘내 마음 되어보기’ 활동을 하게 된다. ‘내 마음 회복하기’ 활동에서는 논어에서 추출한 여러 상담 방법인 내적 동기화 높이기, 분노 다스리기, 투명하게 자기를 개방하는 태도, 진실함과 수양의 중요성, 배움 즐기기, 배움 구하기, 실력 배양하기, 구체적 모델 제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내 마음 되어보기’ 활동에서는 선입견 배제하고 관찰하기, 친구의 허물을 덮고 충고하는 태도 갖기, 외모 예절 갖추기, 긍정적인 정서 반응 늘리기 등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집단원이 함께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토의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정리 단계에서는 각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의 느낌이나 생각 등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본회기 또는 다음 회기와 관련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자신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어상담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활동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논어상담프로그램 활동 내용

회기	단계	활동명	활동 내용	상담 요소
1	도입	마음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어상담프로그램의 주제,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기</li> <li>▪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지켜야 할 약속 알기</li> <li>▪ 별칭짓기를 통해 자신의 특성을 표현하기</li> </ul>	
2		내 마음 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과 관련된 어휘를 생각해 보기</li> <li>▪ 얼굴 표정을 이용해 내 감정을 이야기하기</li> <li>▪ 대부분 친구들이 비슷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알기</li> </ul>	
3		마음의 영향력 생각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힘들 때, 아픈 마음, 잊고 싶은 나에 대해 생각해 보기</li> <li>▪ 가장 즐거웠을 때, 행복한 마음, 자랑스러운 나에 대해 생각해보기</li> <li>▪ ‘민자건의 일화’를 통해 같은 경험이라도 다른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음을 알기</li> </ul>	내 마음 회복하기 (忠=中+心)
4		내 마음 속이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노 다스리는 방법 생각해 보기</li> <li>▪ 본래적인 마음이 미혹되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곧바로 나타나도록 하는 직(直)의 태도 갖기</li> </ul>	
5	진행	내 마음에 비춰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마음에 대한 진실함과 수양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 생각해 보기</li> <li>▪ ‘공자, 안회’ 등 마음 공부를 위한 구체적 모델 제시하기</li> </ul>	
6		너의 마음 생각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의 단점 찾아보고 단점의 좋은 점 생각해보기</li> <li>▪ 선입견 배제하고 관찰하는 태도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성(誠) 실천하기</li> </ul>	
7		마음이 서로 같음을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가고 조심하는 경(敬)의 태도로 친구 입장에서 마음 헤아려보기</li> <li>▪ 친구의 허물을 덮고 충고하는 방법 생각해보기</li> </ul>	네 마음 되어보기 (恕=如+心)
8		마음으로 친밀해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존중하는 태도 및 외모 예절 갖추기</li> <li>▪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공자가 제시한 군자상 실현하기</li> </ul>	
9		긍정적 마음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마음 조절하기</li> <li>▪ 긍정적 정서 반응 늘리기</li> </ul>	
10	종결	새로운 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 중 느낀 점을 나누고 서로의 장점 피드백하기</li> </ul>	

## 초등학생용 논어상담프로그램의 적용 및 자료 처리

###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음성군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5학년 10명(남 4명, 여 6명), 6학년 10명(남 5명, 여 5명)을 실험집단으로, 이웃한 △△초등학교 5학년 8명(남 5명, 여 3명), 6학년 12명(남 6명, 여 6명)을 통제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측정 도구

이 연구는 논어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사전 검사로 자아존중감 검사와 교우관계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에게 논어상담프로그램을 적용·실시하였으며 마지막 회기가 끝난 후에 사전 검사와 동일한 측도의 사후 검사를 두 집단에 다시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 가. 자아존중감 검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Coopersmith(1967)의 아동용 자아존중감 검사를 재작성하여 사용한 공태수(1998)의 자아존중감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일반적 자아 24문항, 사회적 자아 8문항, 가정적 자아 8문항, 학업자아 8문항 등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의 Cronbach 신뢰도는 .81로 보고되고 있다(황경희, 2000).

#### 나. 교우관계 검사

교우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Furman과 Bierman(1983)의 교우관계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를 조성례(2001)가 재작성한 교우관계 검

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교제 6문항, 애정 10문항, 친밀감 7문항, 유사성 8문항, 지지 9문항 등 5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의 Cronbach 신뢰도는 .84로 보고되고 있다(이영숙, 2004).

### 연구 설계

논어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설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설계

GE	O <sub>1</sub>	X	O <sub>2</sub>
GC	O <sub>3</sub>		O <sub>4</sub>

GE	실험집단
GC	통제집단
X	실험처치(논어상담프로그램)
O <sub>1</sub> , O <sub>3</sub>	사전 검사(자아존중감 검사, 교우관계 검사)
O <sub>2</sub> , O <sub>4</sub>	사후 검사(자아존중감 검사, 교우관계 검사)

### 연구 절차

#### 가. 사전 검사 및 집단구성(2010.10.12)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하루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자아존중감 검사와 교우관계 검사를 실시하였다.

#### 나. 프로그램 실시(2010.10.13~11.10)

실험집단에 논어상담프로그램을 1주일에 2회씩 매회 40분씩 5주간 10회 집단상담을 실

시하였다. 실험집단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않았다.

검증을 실시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다. 사후검사(2010.11.11)

프로그램 종료 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실험집단, 통제집단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 결과 및 해석

연구에 사용한 논어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자료 처리

이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실시하였다.

### 가. 논어상담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첫째, 논어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 검사를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M) 및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비교하였으며, 자아존중감 검사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지고 4개의 하위영역의 총합은 전체적인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점수이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둘째, 통계처리는 SPSS 12.0 for Window로 전산처리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표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구 분		N	M	SD	t	p
자아존중감 전체	실험집단	20	99.20	8.14	.681	.500
	통제집단	20	101.45	12.33		
일반자아	실험집단	20	50.30	3.67	.714	.479
	통제집단	20	51.55	6.90		
사회자아	실험집단	20	16.00	2.73	1.488	.145
	통제집단	20	17.20	2.35		
가정자아	실험집단	20	16.00	2.73	1.870	.069
	통제집단	20	17.55	2.50		
학업자아	실험집단	20	16.35	1.75	.279	.782
	통제집단	20	16.55	2.68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집단이라 할 수 있다.

#### 2) 논어상담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검증

연구에 사용한 논어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프로그램 실시 후에 얻은 자아존중감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전체적으로 실험집단의 평균 108.60이 통제집단의 평균 100.80보다 높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t=2.229$ ,  $p<.05$ ) 그러므로 논어상담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논어상담프로그램을 실시 후 아동의 자아존중감 신장에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 마음을 알아보고 네 마음이 되어보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실시 후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하위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논어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과의 사후 자아존중감 검사에 대한 하위 영역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업적 자아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일반적 자아감, 사회적 자아감, 가정적 자아감의 세 가지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영역인 일반적 자아감, 사회적 자아감, 가정적 자아감에서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고루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나. 논어상담프로그램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교우관계에 대한 동

표 4. 논어상담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검증

구 분		N	M	SD	자유도	t	p
자아존중감 전체*	실험집단	20	108.60	9.27	38	2.229	.032
	통제집단	20	100.80	12.60			
일반자아	실험집단	20	55.25	4.94	38	1.961	.057
	통제집단	20	51.60	6.69			
사회자아	실험집단	20	17.85	2.18	38	1.182	.245
	통제집단	20	17.00	2.36			
가정자아	실험집단	20	16.70	2.49	38	.519	.607
	통제집단	20	17.10	2.38			
학업자아*	실험집단	20	17.60	2.37	38	2.094	.043
	통제집단	20	15.75	3.16			

\*  $p<.05$

표 5. 교우관계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구 분		N	M	SD	t	p
교우관계 전체	실험집단	20	74.55	17.06	.521	.606
	통제집단	20	71.95	14.41		
교제	실험집단	20	17.75	4.63	.448	.656
	통제집단	20	17.15	3.78		
애정	실험집단	20	17.75	4.63	.448	.656
	통제집단	20	17.15	3.78		
친밀감	실험집단	20	13.70	3.46	.607	.547
	통제집단	20	13.05	3.30		
유사성	실험집단	20	14.95	3.66	.515	.610
	통제집단	20	14.40	3.06		
지지	실험집단	20	16.40	4.05	.305	.762
	통제집단	20	16.00	4.24		

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비교하였으며, 교우관계 검사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뉘어지고 5개의 하위영역의 총합은 전체적인 교우관계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집단이라 할 수 있다.

## 2) 논어상담프로그램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검증

연구에 사용한 논어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프로그램 실시 후에 얻은 교우관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우관계 전체적으로 실험집단의 평균 88.65가 통제집단의 평균 79.30보다 높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t=2.063$ ,  $p<.05$ ) 그러므로 논어상담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교우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논어상담프로그램을 실시 후 아동의 교우관계 향상에 상당히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네 마음이 되어봄으로써 교우관계 향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아동들의 교우관계 하위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논어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과의 사후 교우관계 검사에 대한 하위 영역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친밀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교제, 애정, 유사성, 지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영역인 교제, 애정, 유사성, 지지에서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고루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교우

표 6. 논어상담프로그램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검증

구분		N	M	SD	자유도	t	p
교우관계 전체*	실험집단	20	88.65	10.75	38	2.063	.046
	통제집단	20	79.30	17.18			
교제	실험집단	20	21.35	2.99	38	1.833	.075
	통제집단	20	18.95	5.03			
애정	실험집단	20	20.40	4.29	38	.980	.333
	통제집단	20	18.95	5.03			
친밀감*	실험집단	20	16.10	2.40	38	2.566	.014
	통제집단	20	13.65	3.52			
유사성	실험집단	20	17.60	2.37	38	1.515	.138
	통제집단	20	16.05	3.91			
지지	실험집단	20	20.10	2.97	38	1.690	.099
	통제집단	20	18.25	3.89			

\* p&lt;.05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논어」에 담겨있는 ‘마음’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마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마음의 성장과 관련된 상담 요소’를 찾아내어 초등학생용 논어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먼저 「논어」 속 공자의 마음 교육에 근간이 되는 구절 및 「논어」와 관련된 기존 연구물을 통해 「논어」에 함의된 상담 목표, 상담 원리, 상담자의 역할, 마음의 정체와 특성, 마음의 발달단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논어상담프로그램의 상담 요소와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하고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선행연구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논어」에 담겨있는 ‘마음’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마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마음의 성장과 관련된 상담 요소와 상담 방법을 찾아내어 초등학생용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공자의 교육방법이 현대의 집단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는 연구(한지영, 2006)와 「논어」는 인류의 고전이자 상담의 고전으로 손색이 없다고 한 연구(박성희, 2007)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연구자가 개발한 논어상담프로그램은 ‘마음’에 초점을 두고 상담요소로 ‘내 마음 회복하기(忠)’와 ‘네 마음 되어보기(恕)’의 활동을 하였다. 충은 ‘가운데(中)’와 ‘마음(心)’이 합하여진 글자로 마음에 중심이 올바르게 서있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선 나 자신을 위하여 참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는 ‘같다(如)’와 ‘마음(心)’이 합하여진 글자로 남의 마음과 같아진다는 뜻으로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자가 인애를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덕목으로 규정지어 표현했고 그 방법론으로 충(忠)과 서(恕)를 제시했다고 한 연구(정종, 1980)와 충서 경지가 인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공자 인성교육의 목표라고 한 연구(이동욱, 1996), 공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인간은 더불어 살 수 있는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한 연구(김삼화, 2002),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타자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는 넓고 깊어진다고 한 연구(양성준, 2009)와 일치한다.

셋째, 연구자가 개발한 논어상담프로그램을 적용·실시한 후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향상에 미치는 결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논어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향상에 있어서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논어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변화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여,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교우관계의 개선을 가져온 것이다. 이는 아동들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남과 더불어 사는 참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김경숙, 2004)와 일치한다.

이 연구는 「논어」에 담긴 마음 성장 관련 내용을 토대로 논어 상담이라는 새로운 상담학적 연구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논어」에서 마음의 변화와 성장에 의미를 지닌 상담요소와 상담방법을 추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논어」에 담긴 마음에 관한 지식들이 상담학적으로 매우 가치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공자가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 마음을 변화·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와 성장을 이해하는 방식은 상담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상담 방법론적으로 보다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앞으로 논어 및 공자의 사상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보다 가치있는 상담학적인 지식들로 정리해서 상담의 체계를 굳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대한 논어 및 공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방면에서의 실질적인 상담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양인 특유의 마음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논어뿐만 아니라 방대한 지식과 정보, 사유의 틀을 제공하는 우리 역사와 우리 고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형기 (2006). 유교철학 에세이. 유학주임교수실 편저. 유교, 종교인가?(pp.47~4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상리 (2006). 유교철학 에세이. 유학주임교수실 편저. 욕망의 절제, 그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pp.81~82).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상리 (2006). 유교철학 에세이. 유학주임교수실 편저. 인은 사랑이다(p.64). 서울: 성균



- 관대학교 출판부.
- 박성희 (2001). 상담과 상담학. 서울: 학지사.
- 박성희 (2007). 논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박성희 (2008). 고전에서 상담 지식 추출하기. 서울: 학지사.
- 성백요 (1994). 논어집주. 서울: 전통문화연구소.
- 양병무 (2010). 논어읽기. 경기도 파주: 21세기 북스.
- 양성준 (2009). 청소년을 위한 논어. 서울: 두리 미디어.
- 이연호 (2010). 재미있는 논어이야기. 서울: 큰 방.
- 이천효 (2008). 행복을 찾아 떠나는 공자 여행. 경기도 고양: 르상스미디어.
- 정 종 (1980). 공자의 교육사상. 서울: 집문당.
- 李澤厚. (2006). 논어금독(論語今讀). (임옥균역). 서울: 북로드.
- 于丹. (2009). 위단의 논어 심득(論語心得). (임동석 역).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 강태경 (2008). 교우관계문제검사의 교차타당화. 진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2004). 마음공부법의 교육적 적용. 제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삼화 (2002). 논어에 함의된 상담원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 (2010). 마음챙김명상 활용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경숙 (2007).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미덕 (2006). 논어를 통한 인성교육 연구. 조선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준 (2008). 공자의 인 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길상 (2007). 인간의 마음과 자연치유에 관한 고찰. 서울장신대학교자연치유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욱 (1996).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인성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란 (2008). 공자의 교육방법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2004).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존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근덕 (1992. 3.). "공자의 심성론". 동양철학 논문집. 한국동양철학회.
- 최연실 (1999). 동양사상에 나타난 상담적 요소의 분석-불교와 노자사상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논문.
- 한지영 (2006). 논어에 나타난 상담 개념분석. 청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신기 (2008). 논어에 나타난 군자교육의 재해석이 초등학교 전인교육에 주는 함의. 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희 (2000). 결손가정 아동을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 고 접 수 일: 2010년 12월 10일

◆ 수정원고접수일: 2011년 01월 10일

◆ 게재 승인 일: 2011년 01월 15일

## The Development of “Non-Eo Counseling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ung-Hee Lee

Ch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hink about ‘the nature of the mind’ through the extraction of contents related to the ‘mind’ which is contained in 「Non-eo(the Analects of Confucius)」 and to devise a ‘Non-Eo’ counseling program intende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finding out counseling elements related to the growth of the mind. The ‘Non-Eo’ counseling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as 10 lessons of forty minutes each and divided the group counseling procedure into three phases as introduction, progress, and wrap-up.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upper grades in a specific county: 20 students i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respectively. The ‘Non-Eo’ counseling program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twice a week for five weeks and it was not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Two measurement tools were us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s: the self-esteem measurement test adopted by Gong, Tae-Su(1998) which was originated from the self-esteem measurement test for children developed by Coopersmith(1967) and the friendship measure test adopted by Jo, Seong-rye(2001) which originated from the friendship measure test developed by Furman and Bierman(1983).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wth of self-esteem of the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at in the control group; in general, the p-valu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032. Second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wth of friendship of the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at in the control group; in general, the p-valu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046. The fact that this study carried out a new counselling approach called ‘Non-Eo’ counseling based on the contents related to ‘the growth of the mind’ in 「Non-eo」 is of great significance.

*Key words : mind, Non-Eo counseling program, self-esteem, friendship, elementary school students*